

# “중군 위안부는 존재했다... 일본은 인정하라”

## 이치노헤 스님, 8일 동국사서 위안소 사진자료 공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연구해온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일본 위안소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간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주장한 일본 중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9월 8일 군산 동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위안소와 군인들 사진, 중국 남경의 위안소 부지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위안소 사진이다. 이 사진은 130mm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전문 직업 사진사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현수막에는 중국 칭따오(靑島)라는 지명이 선명히 있으며, 군인들이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위안소 사진은 일본에도 10점 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자료이다. 여기에 위안소 지역명이 적혀있는 것은 공개된 사진

이 유일하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육전 경매를 통해 올해 1월 1일 입수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일본 위안소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군인들의 이용

올해 1월 일본 육전 경매서 입수

위안소 사진, 日도 10점만 존재

칭따오 육군 위안소 설치 증거

남경에 걸립될 박물관 기증 예정

종걸 스님과 화해 법회도 계획

이 끝나면 현수막을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사진의 상황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상관이 병사들이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9월 8일 일본 위안소 설치 증거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다.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안에 들어가면 몇 분안에 나오라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등 당시 위안소마다 규칙이 있었다”면서 “아주 생생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치노헤 스님에 따르면 칭따오에는 해군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기록만이 존재했지만, 이번 사진의 발



중국 남경 위안소 부지. 올해 중으로 위안부 박물관이 설치된다. 이치노헤 스님은 이곳에 위안소 사진들을 기증하고 종걸 스님과 함께 화해의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견으로 육군 위안소 역시 칭따오에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군에서도 해군과 육군은 사이가 좋지 않아 함께 위안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진은 육군 위안소 사진이며, 칭따오에는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 위안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소 운영의 특이점도 발견됐다. 일본군은 대대적으로 위안소를 이용하는 것을 감추기위해 시내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교외에 위안소를 설치했거나 공개된 사진은 칭따오의 시내임을 알 수 있다.

이치노헤 스님은 “위안소 옆의 가판은 약국이며, 화장품 가게의 포스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사진의 위안소는 칭따

오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공개한 자료들이 객관적 역사를 실증하는 데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개관하는 중국 남경 위안부 박물관에 위안소 사진 일체를 기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은 이곳에서 화해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피해자는 문제의 접근을 감정적하기 쉽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감정을 건드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강제성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도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역사 연구가 진행되기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족주의는 분쟁을 만들고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민족을 넘는 철학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조동제 전북 지사장

## 인성교육 강화 ‘새 컨트롤타워’ 구축

### 조계종 포교원 8일 출범식... 위원장 헤거 스님 위촉

조계종 포교원이 2012년 출범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9월 8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직무실서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이하 인성개발위원회, 위원장 헤거)’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기존 청소년심성프로그램자문위원회 경과보고 및 확대·개편 취지보고, 위원회 조직 구성 소개, 위촉장 수여 등 진행됐다.

포교원은 “인성교육진흥법및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위한 불교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포교원 인증 청소년인성프로그램 등 사회에 적극 홍보·보급하고, 종단차원 인성교육사업 계획을 위해 ‘청소년심성개발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선원장 헤거 스님이 위원장으로 나선 인성개발위원회에는 고문단으로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정갑운 국회부의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개발위원회는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



조계종 포교원은 9월 8일 인성개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종단차원 인성교육시스템 마련

고문단 용타 스님 외 3명

위원회에 인경·마가 스님 등

“불교계 사회적 역할 수행할 것”

님, 교육부장 진각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15명이다.

위원장 헤거 스님은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와 종단은 함께 힘 모아 ‘사람다운 사람’을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 인

성 갖춘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석구 고문은 “인간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믿음 아래 불교계가 청소년 심성개발에 나선 것이 매우 반갑게 느껴진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인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새롭게 구성된 고문·위원단에 축하를 전하며, 템플스테이문화가 인성교육의 새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이 전국 약 140여개 되는 데 주 10대를 비롯한 20~40대 청·장년층이 교류 참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명상·인성프로그램이 불교계 전인적 인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포교원은 2012년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을 인증·개발·보급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 마음등불’을 국고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밖에도 ‘명상과 함께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청소년명상프로그램-나를 찾아가는 선’ 등 개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화쟁’의 올바른 이해·실천 방안 모색

### 화쟁위·화쟁 아카데미 22일 좌담회 개최

‘화쟁(和諍)’은 여러 대립되는 의견들을 조화시키려는 불교 사상으로, 현대사회 갈등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화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실천법을 모색하기 위한 답문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 이하 화쟁아카데미)는 9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사간동란 스튜디오 3층서 ‘화쟁 좌담회-화쟁(和諍)

을 화쟁하다’를 공동 주최한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 이도홍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의 ‘화쟁론’에 대해 이도홍 교수가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반박하며

사회적 화제를 이끈 것이 단초가 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화쟁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사회상에 화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화쟁아카데미는 “화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수록 이해와 관점도 달라지며 쟁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화쟁의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화쟁을 화쟁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며 “쌍용차나 강정마을, 종단 내부 관련해서는 의현 스님 재심결정 등 현실 사례들에 화쟁을 적용해보는 등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011-1925

박아름 기자

##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종령 입법예고

개혁정신 계승과 과거사 문제 논의를 위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종령이 제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9월 3일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구성이 결의된 기구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정신 및 내용을 계승하고 통합종단 이후의 과거사 문제 해결 및 1994년 멸빈자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자문위원회, 총괄처,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부사주지, 중앙총무기관, 중앙총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신도 및 실행단체,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대중공사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7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로는 △과거사 정리 분과위원회 △1994년 멸빈자 처리 분과위원회 △종단개

혁 계승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며 △통합종단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의 선정 및 조사, 처리방향 및 기준과 원칙 마련 △1994년 멸빈자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해결방안 마련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개혁의 미래지향적 계승과 발전방안 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운영예산은 종단 보조금, 후원금, 회수금 등으로 이뤄진다.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 까지 우편이나 이메일(ykkim@buddhism.or.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02)2011-173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음반총판 **운주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음반

### 전세계 힐링명상음악계 최고 마스터이자 명상음악의 대명사, **도이터!**

국내외 명상/힐링/요가/릴렉스/레이키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 힐링명상음악!

도이터의 앨범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스테디 셀러이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반들!



**레이키 (Reiki)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세계최고 권위의 뉴에이지 음악상 (New Age Voice Music Award) '최고 명상/힐링 앨범상' 파이널리스트!



**불성 (Buddha Nature)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세계최고 권위의 뉴에이지 음악상 (New Age Voice Music Award) '최고 명상/힐링 앨범상' 수상작!



**열반 깨달음의 길 (Nirvana Road)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잃어버린 마음의 문턱에 찾아 온 새벽 여명, 시편한 바람, 맑은 시냇물 같은 힐링명상음악!



**코야산 (Koyasan)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근래적으로 어떠한 처방전도 필요 없는 명악과 같은 '명혼의 완전한 치유제' 음악!



**황홀한 땅 (Land of Enchantment)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자연의 명성에서 얻은 음악이 평화롭고 환기로운 세상인 '황홀한 땅'으로 인도한다!

◆ 구입처 : 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통일하이빌 B1(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도이터 음악은 인간의 본성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신비의 명상음악이자 치유의 음악으로 인간과 세상을 평화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 송수현 (정신세계원 원장)

“도이터에게 귀를 기울여 보자. 도이터는 명상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우주질서 속에 깃든 치유의 힘을 보여준다.” - 김진복 (명상음악 평론가)